

전남도, 미래 운송기 e-모빌리티 속도

국비 265억 확보 핵심부품 국산화 등 추진 지난해 9월 말 기준 217억 규모 수출 성과

전남도가 미래 운송수단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하는 '블루 트랜스포트'의 핵심 e-모빌리티 산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국비 265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2014년부터 e-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 영광 대마전자차산단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실증사업을 추진했다. e-모빌리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집적화와 함께 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올해 e-모빌리티 분야 국비예산으로 총 265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와 본격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도내 e-모빌리티산업 생태계가 원활하게 확장될 전망이다.

특히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 구축 관련 국비 예산을 전년보다 20억 원 늘어난 30억 6,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중소기업 공용부품 양산을 위한 필수 공정 설비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됐다. e-모빌리티 기업의 출자로 이뤄질 협동조합을 설립해 중소기업이 해당 시설을 공동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비도 전년보다 19억 4,000만 원 늘어난 48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 전기이륜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체어 등 4종의 PM 공용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해당 개발 제품을 할

용해 대중교통 연계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부품 국산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실증모델 발굴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미래차 전자파 인증 평가시스템 구축 관련 국비도 전년보다 10억 5,000만 원 늘어난 40억3,000만 원을 확보, 전자파 시험 인증평가센터 착공과 함께 연차별 계획에 따른 인증 장비를 적기에 구축하게 됐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아, 규제완화·개선 및 관련 산업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한 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주행실증, 도로교통법 등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코리아하이테크 등 7개사와 총 1,183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하고, 특구지역 내 6개 관련 기업 유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액 640억 원 증가, 신규 고용인력 137명 채용, 지적재산권 등록 25건 등 성과를 냈다.

전남도의 이같은 산업 육성 시책에 힘입어 관련 기업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약

1만 6,000대, 217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1만 4,000대, 190억 원 대비 114% 증가한 규모로, 국내외 e-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 지자체도 e-모빌리티 산업에 주목하고 있어 비교우위 및 시장 선점의 중요성이 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e-모빌리티 기술 경쟁력 등 모든 방면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 지원도 최선을 다해 전담이 클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새해 맞이 안부전화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이 3일 새해 첫 업무로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조손 가정 등 돌봄이웃에 따뜻한 안부전화를 하고 있다. /동구 제공

"더 크고 강한 광주시대 열겠다"

이용섭 시장, 임인년 시무식

광주시는 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공무원,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인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시무식은 시립창극단과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새해를 시작하는 희망찬 공연으로 시작돼 이용섭 시장과 직원들 간 신년토끼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민선7기 광주가 이뤄낸 94개의 국내 최초·유일·최대 사업과 지역 미래성장의 동력이 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185개의 국책사업 유치 등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이 광주에서만큼은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 획기적으로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시무식은 시의정관과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과 아픔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겠다"면서 "시민과 힘을 합쳐 임인년 새해에 좋은 일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천상운집(千祥雲集)의 해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오선우 기자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 취임

전남소방본부 제16대 신임 본부장에 김조일 경상남도소방본부장(사진)이 3일 취임했다.

대전 출신인 신임 김조일 본부장은 보문고등학교, 고려대 유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김 신임 본부장은 부임 첫날 취임식 대신 소방본부 과장, 18개 소방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본부 영상전력회의실에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신임 본부장은 "가장 이상적인 지휘관의 모습은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이 잘 운영되도록 최상의 재난 대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지휘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200만 전남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에 두 어깨가 무겁다"며 "도민이 어디에 계시든 신속한 대응으로 신뢰를 뒤흔들 사랑받는 소방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태식 전남선관위 사무처장 취임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김태식 전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국장(사진)이 취임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신임 김 사무처장은 경기도선관위 행정과장, 중앙선관위 정보운영과장,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장을 두루 역임한 선거전문가다.

김태식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



거는 투명한 선거절차와 공정한 법 집행 속에 정책으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광주시, 중기 경영안정자금 조기 지원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2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조기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총 2,200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1,600억 원, 하반기에 6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자, '광

상·하반기 2,200억 규모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의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체당 3억 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등 우수기업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프리(PRE)·명품 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 자금 신청기간은 4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응지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연도 결산

재무제표 등을 작성해 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기업에 해마다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2,2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서류 접수와 심사 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4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순항한 시 기업육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제위기 등을 고려해 지원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겼다"며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기획, 모금, 배부, 부동선, 광고, 영업, 분장, 영업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분묘개장광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전남 여수시 읍내면 월산리 178-8(산52)
2. 분묘가수: 4기(단장)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2021. 11. 24 - 2022. 02. 23)
4. 개장사유: 재산권행사
5. 개장방법: 유언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공고인이 임의개장 (봉안당 연치 10년)
6. 안치장소: 영락공원내 추모의 집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번지)
7. 신고처: 대전산업(주) (010-4654-4712) 대행업체: 세진산업 (010-5500-5404)
8. 신고시 구비서류: 제적등본, 족보,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
9. 기타사항: 위 지방내에 분묘 유실 등 잡종이 우거져 발견하지 못한 분묘 또는 공사 중에 발견되는 분묘(유골)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함.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위 공고인 대전산업주식회사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본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시애틀 상담 ◀

호남지사 010-2175-4731 /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질병관리청

봄바람, 코골을 간질여도
머리 두기를 할니다
기다렸던 예방접종이 시작되어도
마스크를 씁니다

#우린 #방역에진심인편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회환 3단
근조화환 3단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